



“갈 곳 없는 학생들 보금자리 마련, 힘이 되어주세요”

다문화 청소년 그룹홈 건립 위해 ‘후원의 밤’ 여는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중도국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새날학교’는 15개국에서 온 70여 명의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폐쇄적인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합니다.”

다문화 청소년 위탁형 대안학교인 광주 새날학교는 오는 6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 계수초등학교 강당에서 ‘그룹 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은 새날학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다문화 음식 나눔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새날학교 이천영(54) 교장은 곧 다가올 다문화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보육비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날학교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아파트 3채를 마련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일대보증금 약 100만 원을 마련하느라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빙곤 때문에 고통받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을 헬스케어로 키워 10년, 20년 후 우리나라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학

생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그는 16년 전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에서 일하며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과 광주 평동초등학교 교실에서 새날학교를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 근로자, 이주 여성들의 처우개선에 협력해 ‘인권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지난 2011년 광주일보가 선정한 뉴파워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도움이 있어서 새날학교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용화 새날학교 명예이사장, 광주시의사회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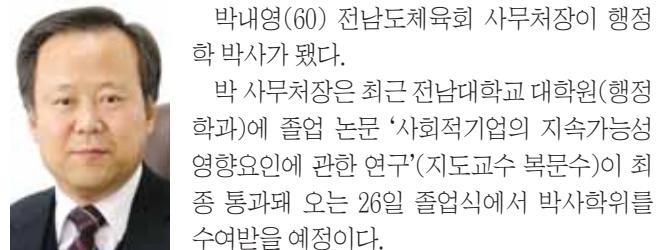
동석 회장, 박 종 두리사랑연구소 대표, LG이노텍 광주공장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이들 덕분에 새날학교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새날학교가 대안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정식 출입장을 받게 됐지만 매달 필요한 일대보증금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매달 일대보증금 이자를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지만 각계각층의 후원이 이어져 새날학교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교육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날학교가 희망을 싹틔울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박내영(60)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행정학 박사가 됐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에 졸업 논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돼 오는 26일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은 도내 106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분석한 학위논문에서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준 시장 경제 영역과 경쟁 및 협조 체계 구축, 여기에 사회환경이 뒷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두암주공4단지 관리사무소, 위안찬치



광주시 북구 두암주공4단지 관리사무소(소장 이창섭)는 최근 주민 250여명과 설 명절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북구두암주공4단지 관리사무소 제공)

김홍식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광주체고 방문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부회장을 지난 3일 전국체전을 대비해 동계 강회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체고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가짜 졸업장’ 인화학교 졸업생에 명예졸업장

선우학교, 13명에 수여키로

광주 인화학교에 다니다가 가짜 졸업장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장애학생들이 명예졸업장을 받게 됐다.

광주장애인 공립학교인 선우학교는오는 14일 열리는 졸업식에서 인화학교 졸업생 중 13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예정

이라고 4일 밝혔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학력인정이 안 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장까지 받았으나 뒤늦게 ‘가짜 졸업장’이란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봤다. 이들은 졸업장을 이력서와 취업 등에 사용했으나 학력인정이 안 되는 가짜 졸업장을 뒤늦게 알게 돼 마음의 상처는 물론 본인들의 사회진출에도 큰 장애가 됐다.

인화학교 졸동문화회는 힘들게 3년 고교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선우학교에서 선의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선우학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비록 학력인정은 안되지만 13명 모두 3년간 인화학교에서 고교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므로 명예졸업장에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할 계획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中 유학생들 한국 설 체험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4명 자택으로 초청



광주여자대학교의 이선재(원쪽에서 두번째) 총장이 지난 설명절 휴일 동안 고향에 가지 못하고 기숙사에 남아 있는 유학생 4명을 자택으로 초대, 설 명절과 그에 따른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초대된 유학생은 봉산·체위화·루단정·왕철씨 등 모두 중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다.

유학생들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배하는 법, 차례 지내는 법, 떡국의 유래 등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됐으며, 총장님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고 배려해 주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총장님께서 부모님처럼 인생의 진로에 대해 상담해 주셔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한국 유학생 활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선재 총장은 “타지에서의 설맞이가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계곤 전 한글학회 회장 별세

김계곤 전(前) 한글학회 회장이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8세.

192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언어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2004년 동아대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국어학 강의’, ‘한글 및 춤법 풀이’ 등 저서를 펴낸 한글 맞춤법과 방언학 권위자다. 특히 1996년에 펴낸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는 30여 년 집필한 1100쪽에 달하는 역작로서 국어 학계에서 조어법 토대를 쌓은 대표 업적으로 꼽힌다.

인천교대 교수를 지내다 1991년 정년퇴임한 고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글학회 회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박권상 전 KBS 사장 별세

박권상 전 KBS 사장이 오랜 투병 끝에 4일 오전 사망했다. 향년 85세.

박 전 사장은 1952년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학동통신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논설주간, 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거쳐 1998년부터 5년간 KBS 사장을 역임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 국제방송통신신기구(IIC) 이사로 자리를 기록했다.

‘자유언론의 명체’, ‘영국을 생각한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종양언론학상과 인권언론학상 등을 수상했다.

빈소는 서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7일, 장지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유토피아 추모관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박명곤(용진유화)·김용자씨 장남 현철(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군 김용복(광주기관단체장회회장)·염지순씨 장녀 현성(광주지방검찰청) 양=8일(토) 낮 12시 40분 허리데인 인 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종) 월례회=5일(수)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오씨 광주전남대동종친회 2월 정기 월례회의 및 종친회장 이·취임식=5일(수) 오후 6시 30분 종친회관 2층 회의실(문동동 소재) 010-3626-2129(사무총장 오경교)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

전남 지원원 이화회(회장 이승복) 월례회=11일(화) 오후 6시 017-601-226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번호 광주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응증명, 고소장, 혁적정리, 가정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제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녀 누구나(선착순 60명), 모집 기간은 28일(금) 062-360-8117. ▲광주유교대학 학생=1학년 신입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민자치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9098.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을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암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광주노인지도대학 제28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녀 누구나(선착순 60명), 모집 기간은 28일(금) 062-360-8117. ▲광주유교대학 학생=1학년 신입

7374.

▲광주불교교육원 2014년도 불교문화대학 신입생=교육대상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1년 과정), 강의 시간은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월 1회 불교문화현장학습 실시 062-228-9098.

▲광주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서비스=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제공(주 5일 운영) 062-233-046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아시아실버원드 오케스트라 회원=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종 택1 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구가 평균소득 120%(4인 가족기준 소득 568만 3000원) 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생 50명(월·수 오후 3시 30분~5시 30분)·2학년 편입생 20명(화·목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성별·학령·

나이 제한없음·2년간 학업이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성균관 유학대학원 수료증 수여, 접수기간은 28일까지 062-672-700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서비스=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제공(주 5일 운영) 062-233-0468.

▲아시아실버원드 오케스트라 회원=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종 택1 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구가 평균소득 120%(4인 가족기준 소득 568만 3000원) 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부음

▲김외연씨 별세 민재홍(나주시 청)·일홍(남해종합개발)·지영씨 모친상 김영옥(요정나리아린이집)·남숙씨 봉모상=발인 5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광희씨 별세 김종필·별씨 모친상=발인 5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